

1500년전 낙서 무더기로 발견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다양한 각석 명문 오목새김 '울진 성류굴'에서 대거 발견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돌에 새긴 명문이 울진 성류굴에서 대거 발견됐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돌에 새긴 명문이 울진 성류굴에서 대거 나왔다. 천연기념물 제155호 '울진 성류굴'에서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각석(刻石) 명문 30여개가 확인됐다.

울진군은 3월21일 성류굴 내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길이 470m에 달하는 성류굴에 들어갔다. 입구에서부터 23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종유석들과 암벽에 새겨진 명문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명문이 발견된 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다.

동굴에서 명문이 발견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종유석에는 '정원 14년(貞元十四年)'이라고 새겨진 명문 3개를 포함해 구체적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 여러 개와 '림랑(林郎)', '우(牛)' 등 화랑 이름 다수가 새겨져 있다.

이후 문화재청이 세 차례 더 조사해 '신유년(辛酉年)'과 '경진년(庚辰年)'명 등 간지(干支), 통일신라 시대 관직명인 '병부사(兵府史)', 화랑 이름인 '공랑(共郎)', 승려 이름 '범립(梵廉)', 조선 시대 울진현령 '이복연(李復淵)' 등 명문 30여개를 찾았다.

특히, '신유년(辛酉年)'과 '경진년(庚辰年)'과 같은 간지 연대 명문은 국보 제147호 '울산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을사년(乙巳年, 서기 525년, 신라)'명과 비슷한 시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 798년에 새긴 '정원 14년(貞元十四年, 원성왕 14년, 통일신라)'명과 조선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명 등도 찾아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이후 조선 시대까지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오가며 계속해 글자들을 새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문은 석주, 석순, 암벽에 오목새김돼 있다.

글자 크기는 다양하며, 대부분 자형이 똑바른 한자인 해서체로 쓰였으나, 약간 흘러 쓴 행서도 일부 확인됐다.

정확한 방문 시기와 방문자가 표시됐다는 점이 학술적 가치다. '정원십사년 무인팔월이십오일 범립행(貞元十四年 戊寅八月廿五日 梵廉行; 정원 14년 8월 25일 범립이 왔다 간다)' 등에서 보이는 '정원 14년'은 중국 당나라 9대 황제 덕종의 연호가 정원(785~805)인 점으로 보아 동굴 방문 시기는 서기 798년, 신라 원성왕 14년인 것으로 보인다.

화랑 이름인 '공랑(共郎)', 승려 이름 범립(梵廉) 등 방문자가 새겨진 것으로 보아 이곳이 화랑이나 승려가 찾아오는 유명한 명승지였으며, 수련장소로도 활용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서기 524년 세워진 국보 제242호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서 나타나는 해서체와 같은 서체를 보이며, 성류굴에서 발견한 것 중에는 모

래시계 모양의 다섯 오(五)자도 3개나 발견돼 서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고려 말 이곡(1298~1351)의 '동유기'에 처음 나오는 '장천(長川)'이란 말을 그동안은 '긴 하천'으로 해석했으나 이번에 성류굴에서 '장천(長川)'명이 발견되면서, 울진에 있는 하천인 '왕피천'의 옛 이름일 가능성이 커졌다. '동유기'는 고려 후기에 이곡이 지은 기행문이다. 1349년 이곡이 가을에 금강산 및 동해안 지방을 유람하고 지었다.

문화재청은 한국 고대사 자료가 희소한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다양하고 수많은 명문은 신라의 화랑제도와 신라 정치·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각석 명문 실측과 탁본, 기록화 작업 등 전반적 학술조사와 동굴 내 다른 각석 명문에 대한 연차별 정밀 학술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

같은 종목 다양한 접근, 영어책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출간

아시아 4개국의 줄다리기를 세계에 알리는 책이 나왔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당진시와 함께 영어판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같은 종목, 다양한 접근' (Tugging Rituals and Games: Common Element, Diverse Approaches)을 펴냈다.

줄다리기는 한국 민족 문화의 특성과 정신적 가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자 동아시아 농경문화에서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공동 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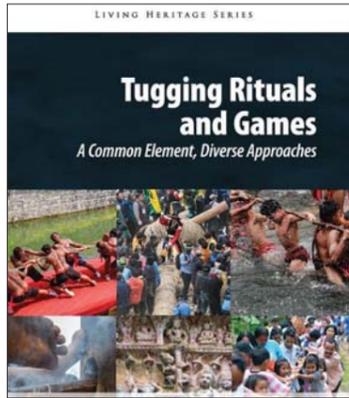
2015년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이 협력해 민속 줄다리기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

했다. 이후 센터는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당진시와 줄다리기 관련 심포지엄과 현장연구를 매년 해왔다.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 베트남 그리고 줄다리기 국제협력 활동에 참여한 태국, 우크라이나, 일본 줄다리기 등의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다뤘다. 우크라이나의 합류는 줄다리기라는 유산이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연행돼 왔음을 보여준다. 다른 국가들의 줄다리기 추가 공동등재 가능성이 있다.

국·공립 박물관, 도서관에 배포된다. 센터 웹사이트(→출판물)에도 공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뉴스



“문화예술 활동 ‘아리아리 동동’ 이 지원해드려요”

전북문화관광재단, 교육지원사업

예술동아리·코디네이터 공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전라북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아리아리 동동'에 참여 할 예술동아리와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

재단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예술동아리'를 모집하고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코디네이터'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예술동아리'는 동아리의 운영목적 달성과 기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강사(예술가)를 자체적으로 섭외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는 연간 18회(회당 2시간, 강사료 12만원) 이내의 강사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 전공자 등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라면 교육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동아리의 대외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코디네이터는 1인당 지역별로 4개의 동아리를 관리하며 활동 회 차 당 8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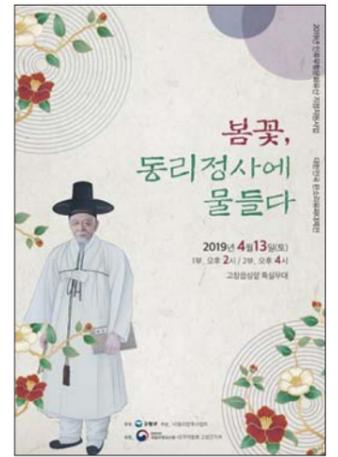
재단은 전년도에 도내 14개 시군 53개 예술동아리를 선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예술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기간을 8개월로 더욱 확대, 57개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단순 향유가 아닌 직접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되 자발성과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문화사업팀(063-230-7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봄 바람 타고 온 국악의 향연'

KBS 국악한마당 내일 오후 4시
동리국악 공연 13일 오후 2시
고창읍성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새봄을 맞아 KBS국악한마당과 동리국악 테마공연을 오는 12일과 13일에 봄꽃과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고창읍성을 배경으로 한 야외 특설무대에서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KBS국악한마당-판소리 명창일가의 흥겨운 무대

KBS국악한마당은 지난 1990년에 시작한 '국악춘추'를 모태로 시작된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명인, 명창, 명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12일 오후 고창읍성 앞 광장에서 펼쳐질 무대에는 판소리 명창일가의 흥겨운 무대와 대를 잇는 국악인들의 소리의 향연과 춤을 만날 수 있다. 김일구, 김영자, 서진희 명창가족의 작은 창극, 조소녀 명창일가의 민요, 왕기철 왕윤정 부녀의 입체창, 이난초 명창 가족이 들려주는 풍류의 멋과 인덕기 유재현 부부가 아름다운 우리의 춤을 선사한다.

#동리국악 테마공연-봄 꽃, 동리정사에 물들다

13일 오후에는 동리국악 테마공연이 펼쳐진다. '1부(오후 2시): 소리, 봄 꽃을 깨우다'는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고창군 관내 소리에, 디딤 등 국악인과 정수인, 원진주, 김찬미, 고현미, 채수정

명창이 출연해 판소리 심청가(동초제), 판소리 수궁가(동초제) 등과 교방입춤, 한량무, 부채입춤으로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2부(오후 4시): 봄 꽃, 동리정사에 물들다'는 김보근 명창의 판소리 심청가(강산제), 김정숙 명창의 춘향가(만정제), 이난초 명창의 판소리 수궁가(동편제 강도근바디), 박애리 명창이 속대머리를 선보인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동리국악 테마공연은 판소리유파대제전으로 펼쳐져 고창이 판소리의 본고장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관광객에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